

2024 추석 가정예배

사도신경

다함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 송

1. 예수사랑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함께

기 도

담당자

마태복음 22:20-21

성경봉독

-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라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함께

말 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뒷면에 있는 설교 내용을 가족 대표자의 인도로 함께 읽거나 들으세요.)

인도자

546장 주님 약속 하신 말씀 위에 서

찬 송

1.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 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함께

후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 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함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 번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로 부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답하시면,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압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취졌을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 반란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지혜롭게도 동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의 형상을 가리키며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